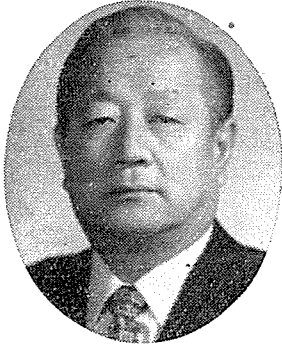


榮光의 열굴

大統領賞 受賞者 프로필



李 敏 載
서울대 自然大教授

石油脫黃에 對한 微生物利用 創案 都市公해인 아황산가스 除去

科學賞 受賞者 李敏載博士(59歲)는 1942년 日本 北海道 帝國大學 理學部 植物學科를 졸업한 후 35년간 강의와 연구를 통하여 많은 후진양성과 연구업적을 냄으로써 우리나라 科學技術發展에 크게 기여한바 있다 그의 전공분야에서 「植物的 耐寒性 研究」「식물 암중에 관한 연구」「Algine산과 그 資源에 관한 研究」등 60편에 달하는 연구업적은 해당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다.

특히 大氣汚染源의 大宗을 이루는 아황산가스의 除去를 爲한 根源의 方策으로서 1969년이래 꾸준히 연구되어온 「微生物에 의한 석유의 脫黃에 관한 研究」는 硫黃酸化菌을 이용하여 油類中의 硫黃分을 제거하는 연구로서 그 결과는 50%이상의 유황분을 제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菌들을 이용 自然環境의 保存, 각종기계 설비의 부식방지, 석유화학공업원료의 순수화, 유황자원의 획득등 인류에게 지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工業化의 가능성을 보여준 매우 괄목할 만한 업적으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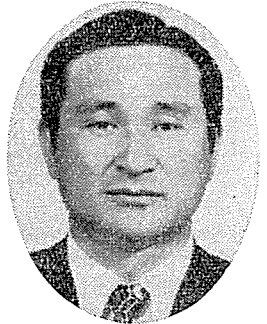
1955년이래 學術院 會員으로서 또 한국생물과학협회장을 다년간 歷任하면서 우리나라 생물과학의 각분야에 걸쳐 그 기반을 견고히 하고 나아가 국제기구와의 유대강화에 힘씀으로써 우리나라 科學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至大하다.

423件의 工程改善으로 稼動率 120% 달성 國內技術로 Argon, Dry-Ice 生産施設 가동

技術賞 受賞者 李鼎鈺(42歲)씨는 1957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공과를 졸업하고 羅州工場(肥料)에 입사한후 18년간 근무하면서 제반기술직 사원의 직책을 거쳐 1973년 공장장에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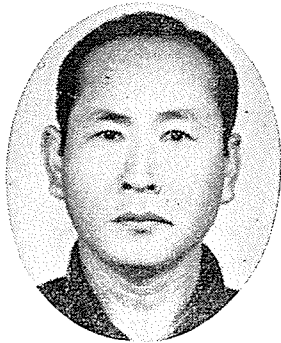
특히 재임기간중 서독기술용역에 의한 나주공장 제1차 제2차 확장사업의 실패로 성능보장이 없되어 尿素가 년7-8만톤 생산에 머물렀으나 423건의 工程改善및 철저한 豫防整備, 적절한 材質선택으로 工場 稼動率및 負荷率 120%의 향상으로 13만여톤의 생산실적을 나타냈음은 공장시운전이래 최대의 생산기록이었다. 공정개선과 병행하여 煙囪管理 熱使用管理및 廢熱回收에 있어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공장 새마을운동의 지표로 설정코 철저히 추진한 결과 괄목할만한 열손실을 절감하였다.

대형이며 고회전의 NH₃ Turbo압축기(3.2kw 5,400PPM)의 Rotor Impeller를 自家製作하여 사용하고 대형 공업용수 냉각탑을 국산화하였으며 노후장치 교체및 예비품 발주에 있어 국산대체화에 성공하였다. 자체기술에 의해 日産 108Hm³의 생산능력을 가진 공장을 한국최초로 나주공장에 건설하여 수입에만 의존하던 Argon을 일부 자체충당케 하였으며 日産10톤의 Dry Ice생산시설을 국내 기술진에 의해 설계 제작 건설하였으며 이를 성공리에 가동하였음은 국내기술능력을 과시한 효시라 할 수 있다.



李 鼎 鈺
韓國綜合化學(株)
羅州工場 工場長

大統領賞 受賞者 프로필



독창적인 研究로 技能발휘
生産原價節減에 기여

沈 震 燮
石油化學支援工團(株)
整備 係 長

技能賞 受賞者 沈震燮(55歲)씨는 1936年 삼척 협동유지공장 공작과 기계수리 견습공으로 투신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년간을 같은 기계정비기능분야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모범적인 기능공으로서 일해 왔다. 1956년부터 7년간 한국종합화학(주) 증주공장 건설시 기계설비 및 기계정비 총반장으로 맡은바 책임을 다하여 동공장건설에 이바지 하였으며 1972년 석유화학지원공단 설립과 동시 기계정비기능분야에서 우수한 기능과 작업통솔로 기능인의 귀감이 되어왔다.

그간 터빈과 압축기 부분품의 국산화 (2중) 및 개량(2중) 연구에도 뛰어난 창의력과 기능을 발휘하였는데 국산화연구개발로는 TURBINE SHAFT COLLAR의 가공제작과 TURBINE PUMP의 WEAR RING의 제작이 있다. 개량연구개발로는 고압합성 GAS COMPRESSOR CYLINDER의 누수방지작업 방법 개발과 TURBINE BLADE SILICA SCALE의 효율적인 FLY ASH CLEANING 방법개발이 있다.

특히 1971년 중전까지 외국기술자를 초빙하여 실시해온 암모니아공장 합성깨스 압축기(V-601-C) 2단 Cylinder-몸체균열 사고에 대하여 독창적인 연구와 열의로서 몸체수리를 성공적으로 수리완료하여 생산증가 및 원가절감에 기여한 공헌이 다대하다.

第9回 科學技術賞 候補審査 經過

科學技術賞 制度는 1968년에 制定되어 每年 實施돼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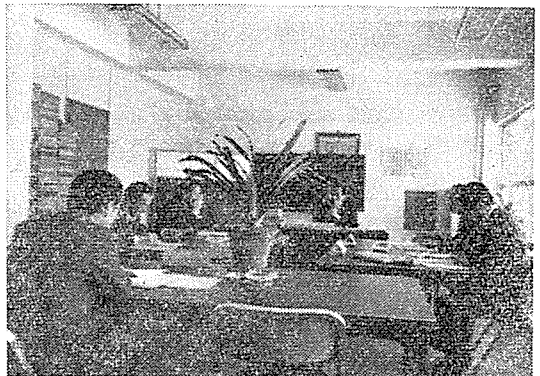
科學技術人의 最高의 榮譽로 羨望되는 이賞은 今年으로 아홉번째 주어진다.

이行사는 全國民의 科學技術에 對한 關心과 科學技術人의 參與意識을 높이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特히 今年에는 賞金이 引上되어 科學技術賞 受賞者 3人에게 各各 200萬원의 副賞이 주어지게 되었다.

科學技術處 公告 73號(1975年 12月 18日)에 따라 大韓民國 科學技術賞 受賞候補추천을 접수한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회장 金允基)는 76年 2月 20日 接受마감한바 추천된 科學賞候補 14名, 技術賞候補 11名, 技能賞候補 10名으로 總 35名이 었다.

76年 3月 5日 審査分科委를 組織, 科學賞審

査 分科委員長 權寧大(原子力研, 常任委員)
技術賞分科委員長 馬景錫(엔지니어 클럽會長)
技能賞審査分科委員長 鄭淳和(기능올림픽 事務總長)氏가 各各 選出되어 3月8일부터 分科別 審査를 實施했다.



사진; 綜合審査를하고 있는 場面 3月 15日